

‘광주호 호수생태원’ 광주시 제1호 지방정원 등록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관광명소 수목 5만2천주·생태연못 등 갖춰 스탬프투어 등 탐방프로그램 운영 “지역 관광인프라 확대 효과 기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생태관광명소인 ‘광주호 호수생태원’이 광주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광주시는 30일 북구 충효동 광주호 상단부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호수생태원

을 광주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

광주시는 호수생태원을 지방정원 등록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8월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물 정비를 마쳤다.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으로 10만㎡ 이상의 규모와 녹지 면적 40% 이상 확보,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원관리 전담조직, 지방정원 운영조례 등 관련 기준을 모두 갖

춰야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곳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11번째 지방정원이다.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은 지난 2006년 3월20일 개원해 연평균 30만명의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01~2022년 대한민국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125선’과 산림청에서 선정한 ‘2024년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소개되는 등 광주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수목 5만2000주, 초본 15만5000본을 비롯해 생태연못, 무궁화동산, 전망대, 데크산책로 등 우수한 자연경관과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광주호 호수생태원의 대표적 테마 시설인 황지해 작가의 ‘고요한 시간-DMZ금지된 화원’과 ‘해우소-마음을 비우는 곳’이 정비돼 더욱 풍성하고 수준 높은 정원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호수생태원 내 주요시설을 탐방하는 ‘스탬프투어’와 생태환경·역사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호수생태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관람이 아닌 탐방객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광주호 호수생태원이 광주 제1호 지방정원 등록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함께 지역 관광인프라 확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전남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한다

보성서 돌봄의료 주체 연찬회 통합지원 개발·법적 근거 마련

전남도는 최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전문가 초청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연찬회를 열고 ‘전남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돌봄에 의료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서는 도·시군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재관 보건복지부 사무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 설명 및 강연정여수시 통합돌봄팀장의 시범사업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허숙민 전남도사회서비스원 박사가 전남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 개발을 위한 사업 설명에 이어 참석자 대상 설문조사도 이뤄졌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여수시에 이어, 올해 4월 목포시, 담양군, 영

광군이 추가로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돼 통합돌봄 체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어르신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전남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2025년까지 ‘전남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개발해 시군에 보급하고, 도와 시군별 전담조직 설치 및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전남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확대해 점차적으로 전 시군에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연찬회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관심도를 높이고 정책을 확산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 등이 30일 북구 임동 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갖고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커뮤니티센터는 체력 단련실과 프로그램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이 갖춰졌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 ‘주민 소통공간’ 임동커뮤니티센터 개관

사업비 20억 투입 지상 3층 규모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더할 ‘임동커뮤니티센터’가 30일 문을 활짝 열었다. 임동커뮤니티센터는 생활체육과 공동체 소통공간이 한데 어우러진 주민 복합여가생활공간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북구는 이날 ‘임동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북구 임동 470번지에 위치한 임동커뮤니티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99.61㎡ 규모다. 광주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총사업비 20억원을 시비로 투입했다. 주요시

설로는 다양한 헬스기구가 갖춰진 체력 단련실, 요가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실,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는 다목적실 등이 있다.

임동커뮤니티센터는 광주시와 무등경기장 인근 주민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건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장 소음과 빛공해 등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인근 생활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에 광주시가 협의체 회의, 현장방문 등을 여러차례 실시하고 고심 끝에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기로 결

정하면서 임동커뮤니티센터 개관의 첫발을 뗄 수 있었다.

광주시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만큼 주민들의 복합여가생활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행복이다. 시민의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동커뮤니티센터가 주민들의 활력과 건강을 행기는 사랑방이 되길 바란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광주 청년정책 현장 방문

청년지원 프로그램·정보 경험 “청년 머무는 기회도시에 최선”

국무조정실 청년인턴들이 광주시 청년정책 현장을 찾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정보 등을 경험한다.

광주시는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30명이 30~31일 이틀동안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와 토닥토닥카페,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 등 광주시 청년정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은 청년에게 공공기관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청년인턴들은 그동안 정부 부처의 정책현장을 경험했으며, 이번에 국무조정실 주관 ‘올해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광주시를 찾았다.

광주시는 청년정책 종합평가 대표과제로 △일자리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플러스’ △주거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교육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 △금융 ‘청년드림은행’ △복지 ‘청년 13(일+삶)통장 지원’ 등을 제출했다.

청년인턴들은 첫째날인 이날 청년 13(일+삶)통장 지원사업의 현장인 ‘토닥토닥 카페’를 찾았다. ‘토닥토닥 카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원을 지원하는

광주13(일+삶)통장사업 현장이다.

현장에서 청년인턴들은 ‘올해 610명을 선발하는데, 5000여명이 지원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는데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금융 컨설팅을 받는지’ 등 자산형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한 청년구직 지원기관인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를 방문했다. 이들은 센터를 둘러본 뒤 진로 진단 검사인 ‘버크만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와 진로 방향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인 31일에는 ‘청년 삶의 개선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찾아 현장 중심 인공지능 특화 인재양성현장을 둘러본다.

청년인턴 정남경씨는 “광주시 우수사례를 보며 청년세대에 필요한 정책을 확인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은숙청년정책과장은 “국무조정실 청년인턴들이 광주시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청년이 머무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전국 수소산업 중심지 도약 ‘날갯짓’

8개 기관 업무협약...기업·인력 양성 내달 4일 ‘청정수소 국제포럼’ 개최

전남도는 30일 수소경제 발전과 산업 활성화로 전국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한 수소기업 육성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남도를 비롯해 경남·전북·충북도와 5개 전담기관이 참여해 수소산업을 견인할 예비·수소 전문기업육성 의지를 다졌다. 전담기관은 (사)한국수소연합, 녹색에너지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충북테크노파크다.

주요 협약 내용은 △예비·수소 전문기업육성·지원 △수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지원 △수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수소기업교류회 공동 운영 등이다.

9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기업육성과 맞춤형 인력 양성 등 공동사업추진 기틀을 마련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산업부 주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8억 원(국비·도비 각각 9억)으로 2년간 수소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이를 통해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대규모 수소산업 프로젝트를 이끌 계획이다.

주관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앞으로 성과교류회를 통해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리매

김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11월4일 광양 성황스포츠펀터에서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수도 전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수소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수소산업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전남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상구전남도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서 수소산업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수소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전남이 국내 최고 수소 요람이자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